

한국 문화 녹여낸 '케데현' 금빛 쾌거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케데현' 매기 강 감독(왼쪽)과 '골든' 작곡가 이자 가수 이재. [이재명 대통령 액스 캡처]

미 골든글로브 애니메이션·주제가상 2관왕…매기 강 감독·이재 감동 소감 테디 등 더블랙레이블 작곡가 공동수상…그래미·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도

네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현')가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2관왕에 오르며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 강 감독과 주제가 '골든' (Golden)의 한국인 작곡가들이 잇달아 무대에 올랐다.

'케데현'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골든·Golden)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묵직한 트로피를 안고 무대에 오른 매기 강 감독은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영화가 전 세계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골든'을 부른 가수이자 공동 작사·작곡가 이재도 무대에 올라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공동 작사가 마크 소네블리고, 더블랙레이블 소속 작곡가 곽중규·이유한·남희동(이상 IDO)·서정훈(24)·박홍준(테디)이 수상자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유한과 서정훈은 이자와 함께 시상식 무대에 올랐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케데현'은 외국 스튜디오가 만들었다고 해도 한국의 역사나 문화, 정서를 모두 담고 있는 작품"이라며 "소재와 배경 자체가 한국이고, K팝의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데현'은 악령 사냥꾼인 아이돌 그룹 '헌트리스' 멤버 루미, 미라, 조이가 악령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이다.

K팝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삼은 만큼 '골든'

(Golden)과 '소다 팝' (Soda Pop), '유어 아이돌' (Your Idol) 등 K팝 문법을 살린 주제곡들이 삽입됐고, 컵라면과 김밥, 대중목욕탕, 한의원 등 한국인의 생활 방식이 실감 나게 담겼다. 무속신앙과 저승사자, 조선시대 민화에서 착안한 호랑이와 까치 캐릭터 등 한국의 전통문화와 명동 거리, 남산타워 등 주요 관광지도 디자인 활용됐다.

아울러 아이들의 진지하고 진취적인 면모를 담으면서도 이성에게 반하면 눈에서 팝콘이 튀어나오거나, 맛있는 음식에 정신을 못 차리는 인간적인 모습을 입체적으로 그려내 연령대를 아우르며 사랑받았다.

애니메이션상을 두고 경쟁한 작품들이 '주토피아 2'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등 화제작이었던 점도 주목할만하다.

'주토피아 2'는 지난달 31일 개봉 5주 만에 전 세계 흥행수익이 14억 6000만달러(2조 1100억여원)로 집계되며 '겨울왕국 2' (2019)의 기록을 깨고 역대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가장 흥행한 작품에 올랐다.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의 흥행 기록도 만만치 않았다. 일본 영화 최초로 전 세계 흥행 수입 1000억엔(9440억여원)을 돌파했다.

'케데현'의 경우 극장에선 제한적으로만 상영됐지만, 넷플릭스 콘텐츠 가운데 역대 흥행 1위 작품으로서 박스오피스 순위를 뛰어넘는 작품성을 입증했다.

'케데현' OST 타이틀곡 '골든'은 '아바타: 불과

제'의 '드림 애즈 원', '씨너스: 죄인들'의 '아이 라

이드 투 유', '위키드: 포 굿'의 '노 플레이스 라이크 흄', '트레인 드림즈'의 '트레인 드림즈' 등을 누르고 주제가상을 받았다.

가수 겸 작곡가 이재는 무대에 올라 K팝 아이돌을 꿈꿨지만 좌절하고, 결국 K팝을 디자인 작품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에 대해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

그는 "어렸을 때 나는 아이돌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10년 동안 쉬지 않고 노력했지만, 내 목소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실망해야 했다"며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노래와 음악에 의지했고, 지금 가수이자 작곡가로 여기서 있다"고 말했다. 한국어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매기 강 감독은 소외되고 혼란을 느끼면서도 점차 신념과 용기를 키워가는 헌트리스 멤버들의 특성을 가장 잘 담은 곡인 '골든'을 가장 작업하기 어려웠던 주제곡으로 꼽은 바 있다.

맥락상 중요도가 가장 크다는 판단에 최종 버전을 찾기까지 7~8개 후보군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은 지난해 K팝 장르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1위를 석권했다.

빌보드는 '케데현' OST의 음원차트 돌풍을 2025년의 상징적 순간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케데현'은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에도 북미 비평가 단체가 주관하는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등 2관왕을 차지했다.

'골든'은 다음 달 열리는 미국 그래미 시상식에 서도 본선인 '올해의 노래' 등 5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다. 오는 3월 열리는 최고 권위의 아카데미(奥斯卡) 시상식에서는 아카데미 주제가상 예비후보에 들었다.

/연합뉴스

해학으로 풀어낸 인간의 욕망과 선택

창극 '당산-신(神)나무의 노래' 15일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



전통 음악극 '당산-신(神)나무의 노래'의 한 장면.

〈무안군 제공〉

사람들의 기도가 스며든 당산나무 아래에서 웃음과 풍자가 피어난다. 판소리와 연희가 어우러진 창극 한 편이 인간의 욕망과 선택을 유쾌하게 풀어낸다.

전통 음악극 '당산-신(神)나무의 노래'가 오는 15일 오후 7시 20분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관객을 만난다.

극은 마을을 지켜온 당산나무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마음씨는 작지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학수는 유일한 안식처인 당산나무에 매일 하소연 한다. 그의 사연을 기우는 여인 당산신은 학수에게 능력을 내려 용한 무당이 되게 하지만, 힘을 얻은 학수는 점차 욕심에 휘둘리며 마을을 외면한다. 결국 분노한 신이 능력을 거두고, 학수는 젊어버린 힘을 되찾기 위해 여러 지역의 무당을 찾아 길을 나선다. 이 여정 속에서 웃음과 해학으로 인

간의 욕망과 책임을 짚어낸다.

전통 신앙과 민속 서사를 바탕으로 하되 오늘의 관객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가볍고 명료하게 풀어낸 점이 특징이다. 무거운 교훈을 앞세우기보다 해학과 풍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며 판소리와 연희, 연극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현장감 있는 전통 음악극의 매력을 살렸다.

이번 작품은 지난해 무안에서 열린 '세계음악극 페스티벌'에서 신진예술가 공연평가 1위에 선정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각색과 연출은 김진홍이 맡았고, 활동운·유병가·김태호·장평 등이 연주로 참여한다. 노래와 연기는 김보람, 진태원, 최은혜가 맡아 극의 중심을 이끈다.

관람료 3000원, 승달문화예술회관 누리집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시 설명가 '도슨트'에 도전하세요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16일까지 '시민 도슨트 양성과정' 모집

도슨트는 전시에 대한 생각을 자신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전문적인 매개자다. 작품 외에도 작가, 공간, 문화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풀어내는 역할을 한다.

시민의 시각과 언어로 전시를 해설할 수 있는 시민 도슨트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노경수)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 도슨트 양성과정'을 마련하고 오는 16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20일 첫 시간에는 이묘숙 전 광주시민문화재단 사무처장이 '오리엔테이션', '미술의 역사-서양미술사 개요'를 강의한다.

이어 한희원 작가가 22일 '예술작품과 전시',

'현대도시에서 문화생활'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27일에는 하성흡 작가가 '광주를 그리며 도시를 이야기하다', '예향의 도시 광주'를 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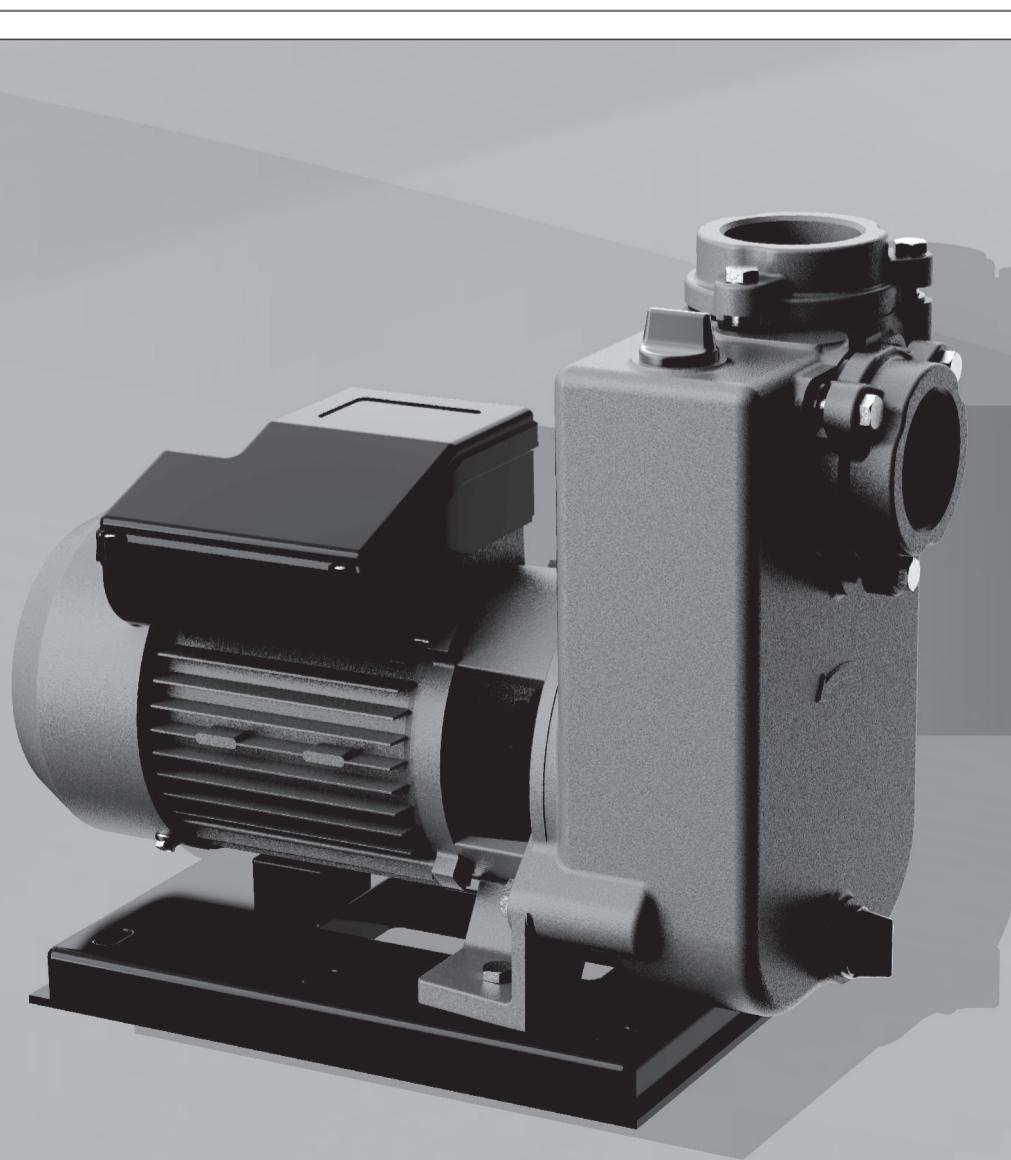
비엔날레에 대한 강의도 있다. 29일에는 광주비엔날레 교육부장이 '광주와 비엔날레'와 '제16회 비엔날레 전시 개요 및 주제 발표'를 주제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30일에는 김경한이 '도슨트 실무-스피치 강화', 이묘숙 전 저장이 '도슨트 실습'을 진행한다.

노경수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을 받은 시민도슨트로 하여금 전시 현장에서 실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며 "문화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현장에서 현실화될 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내일도 더 빛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가비 회원 1만원, 비회원 3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월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월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

wilo